北事竅爰與否列闕か

河蔣介石の長沙の總司令部書置可立同地の名と、湖南北伐車兰蔣介石의派社廣東軍의有力度、湖南北伐車兰蔣介石의派社廣東軍의有力度、湖南北伐車兰蔣介石의派社廣東軍의有力

BB

松木郡の豆を、水木田の韓任計が、水木田の韓任計が、水木田の韓任計が

The Korca Daily News.

Seoul, Korea. Saturday, Aug. 21st, 1926. THE EARTH IS A SPHERE, NOT A CYLINDER.

It will be correspondingly reassuring to bankers when promoters approach them to finance the first tourist airline across the Arctic. Some banker will certainly have to meet that proposition within the next twenty-five years, if we have peace and prosperity. Much more likely, it will happen within the next ten years. But long before the first tourists cross the Arctic we shall coubtless have further confirmation of our meteorological theories by several ex-

traversed it by airplane and dirigible. Whi'e we are discussing arctic temperatures, we might point out an amusing mistake made three years ago by practically the entire American press in quoting an interview with Rear-Admiral William A. Mofiett at the time when he and secretary Denby were planning a transarctic flight with the Shenandoah. The Admiral evidently must have said to the reporters that the temperature above the North pole at a desirable flying height for airships would be expected to be "50 degrees" in early July. The press circulated this statement in the form of 50 degrees below zero, thus misquoting the Admiral by just 100 degrees, for he had, of course, meant 50 degrees above.

니도絶

에

福島の三永郷の後各等島の多敷時頃の本大館優勝族に亦是金成時頃の本大館優勝族に亦是金成時頃の本大館の場合がある。

圖、馬賊數五千 門八十八回

plorers and pioneers who will have

寸

影朗

横領者計橫領額

한남안변군안도면안흥학교(咸南安邊郡安道面安與學校)재정 현대 신국일조간에 보도하바 전 의 형당금에 비행자는다음 과갓다더라(신고산)

임시를 달이러갔는

로가서 마참치료를 방문증어 내서 연과가 두차례나오더니역 기차료를 거칠하며 폭행하느군

가서 그렇것이 아니다집으로도 박기조용이 말하나할지음에 뜻 박기로통사 사오십명이 달려드리 그가리폭행을 한것이딱즉시 등 사용을 대면 당원으로 보냈더니

이 나 어어지나 아저나지 변書) 알만심천원과 대부수명 한국주면(株劵) 오백주와 및 권 라주면(株劵) 오백주와 및 권 라주면(株劵) 오백주와 및 권 자권(職業債券) 악이 만원이지 원수 다하야 성천현(石川縣) 공찰 시간이 보고 모지나 안 있는지 알수 다하야 성천현(石川縣) 공찰 시간이 의로 고지난 안 있는지 알수 다하야 성천현(石川縣) 공찰 지난 하이 수 는 부 내 가 공찰이 나 금 번 되지 않는지 말하다 하다 보고 지난 한 이 시는 부 내 가 공찰이 나 금 번 되지 않는지 말하다 보고 지장찰이 나 금 번 되지 않는지 말하다 하다 보고 지장찰이 바 금 번 되지 않는지 말하다 하다 보고 지장찰이 바 금 번 되지 않는지 말하다 하다 보고 지장찰이 바 금 번 되지 않는지 말하다 하다 보고 지장찰이 바 금 번 되지 않는지 말하다 하다 보고 지장찰이 바 금 번 되지 않는지 말하다 하다 보고 지장찰이 바 금 번 되지 않는지 말하다 되었다.

실하하오한시에 과주교 전자

당한사라물의 말을 듯건대원기 임보기고유수야 등치(水野隆治) 이 등치는 실업게도 김실룡이 가 문가에잇느것을 밝로차쇠된 치료를 하는중이나 원악바른 면두개골이 부서워 다량의피가 바른면귀를통하야 나오구에 바른면서를(鎖骨)이상하야방금도 진당(腦震蕩)이생겨생명이위독

(黄海道)

第三東)(三)の引き、柳谷面永成里) 4:

利や부상관하였다고 参古田기군원의면 음내리(忠府 ※政政(限長萬)은 금월초순경에 그며느리되느박순해 (朴順海) (1个) 국상관하고어데로인지종정 을건추었다느말이 있다데이케징 을건추었다느말이 있다데이케징 당한의 안해의말을들인즉며느리 다부사이에의가별도조치못하여 간것이라고하나 눈치가 이상하

가를 보고장지말씨는족의 이로져우색병 여첫시장의 의로져우색병 여첫시장의 의로 이커 참이라면 고등에 가 지기용이란 고등제 기 어커방에무슨의로 병 의로 목행단을 병원했다.

스며 폭행단을 병원하다 하역 스며 폭행단을 병원하지 보냈 이라고 무렇더니 그사람들이웃 기에 그병원에 있다고 가르게줄 운이요 보낸것은아니라고 하며 차료하여주지말라고면화한것이 아니라 그병원에 있는가 무를것이 아니라 그병원에 있는가 무를것이 이라고 모호한말로 변병을하역 스며 장지필시는 대면 5개차료 할수업도록 하면니냐는 질문을 함아 전기는 가는 질문을 기계 하려하면 お山本堂(夏期休事) 以中共立(普通學校) は完成の(普通學校)

범인은그

1475194

墜落됲無依兒

신랑신부

사진은

(到)、延白個人庭球大會、可处安留學生親睦會)子科可

Ò

面) 에서 나타다 (全北長水都) 에서 나타이모 형행하여 역소 지가를가축의 피해를 만히 간간잇 첫스며장약 물론 하라로 위한 부모달려들을 이도 하면 만이는 일 하는 그 사람이 자 나타이지 사람이 되었다.

一安黄海道)

江原成鏡道) 配向南北道) **至解南北道)**

心滑岗北道) **京観道一週)**

八月廿三日

地豫選은八月廿九日各地引

서

決勝은九月五日京城에서

權

八月廿五日申請期

平元大木洪京灣 東山邱浦城城地

選手機變得煮完協會所定優勝盃書發與分斗大年大會外以選手權保持證으로二元聚畫表彰記明年日本東京阿 4片催む三東式庭球選手權大會的朝鮮代表是嚴違。

朝鮮庭球協會 鎌日報社

鐵道警備兵慘死

화물질(이 차 역 산포 단하의 사람이 장혹하죽고 남어지세 함의 모다증징상 당하야 편 판위수병원(額戌分院)에임원 키역 바금잉담수당을 베푸는 인태 생명이 건질모양이라면

농가의대공황

水災後の 、蟲災

卜手即時踪跡隱匿 라이라다 위험상이라 이웃차

가에서는 공항하에 사하며 다한 구체적을 강구증이나 구체할도리가 엄마는바일

십구일에만사건발생

交通事故頻頻

전 대일나라또이는 폭양이로 동청 수부하고 송급치료를 하였스나 인 (東京)에서는 및 치는사람이속을 드리 모조다셨지에 참명하였고 의 한염멸로인한 것이라는 대한 기를보고하면 이 학리(清凉里) 동화교(漢환)에 도 인 에 발생한교통사고(変通事故)도이라 이 학리(清凉里) 동화교(漢환)에 무의 한리(清凉里) 동화교(漢환)에 무의 등리(清凉里) 동화교(漢환)에 무의 등리(清凉里) 동화교(漢환)에 무의 등리(清凉里) 동화교(漢환)에 무의 등리(濟凉里) 동화교(漢환)에 무의 등리(경凉里) 동화교(漢환)에 무의 등리(경凉里) 동화교(漢환)에 무의 등리(경凉里) 등의 보다 이 주인 기가 등자를 되어 (환)에 보다 되어 등의 보다 이 이 원단되면 등의 (환)에 보다 이 원단되면 등의 기가 등자를 되어 (환)에 보다 이 원단되면 등의 기가 되었다면 기가

(権)を1を1日の登場の日本に

五名の一時の死傷

전부출산군부리면관원리 (조코 編山縣實科國狂川里)이사는 지난 는 김는기(金使某)(의)는 지난 는 김는기(金使某)(의)는 지난 지난기(金使其)(의)는 지난

堂內間爭凶呈

정상으로보지기 김씨는즉시가지 고 이 의도도심원을내며 정정성의 안 하면(승으로 정정성의가족이 등 모이오 편그봉주·민들까지 김씨 의후의통치송한다 머라(고상)

喜悲劇一幕無限川邊が

모목짜주(布木問屋)엄하는신덕후(申總厚)의진을 위시하아 시 내일부가 무집하여 시내서휴무 한처번(市內西萊無限川邊)에서

今やを望る

連日의酷

인고 생두사람으레산리이백이십수 대한 시의를 제어 등 전 기 기 등 대한 원 기 등 대한 원 기 등 대한 원 기 등 대한 원 기 기 의 추 측 이 로 기 원 의 원 의 보 의 기 의 추 측 이 로 기 원 의 보 의 기 원 의 보 의 기 의 추 측 이 로 기 원 의 보 의 기 의 추 측 이 로 기 원 의 보 의 기 원 의 본 의 의 의 기 원 의 본 의 의 기 원 의 본 의 의 기 원 의 본 의 의 기 원 의 본 의 기 원 의 본 의 기 원 의 본 의 기 원 의 본 의 기 원 의 본 의 기 원 의 본 의 기 원 의 본 의 기 원 의 본 의 기 원 의 본 의 기 원

朝鮮男子의相 本夫以七日女儿

보건을 일본에원현 한다군대주 보건을 일본에원현 한다군대주 전 보건을 일본에원현 한다군대주 인한해 오아아기나(奧野 / 추건의 스타일부 매월덕(開府條國町) (請答) 노릇하는 김사롱(金土龍) (請答) 노릇하는 김사롱(金土龍) (司) 오징목 경상러관(三의 육조에 소목 중요하고 조건경상이로 도막하아 의학대로 들어가고 낚자는이 성러관 (湖瓜旅館) 이 나는 중요하고 이 나는 의료하얏습으로 실구일에 보면 서에서 인치취묘한 결과남자는 그녀자가남편이잇는줄놀랐다고 하나보무는 간통죄로 고소합리